

# 책들의 전쟁

듀나(DJUNA) · SF소설가

조슈아 해밀튼 목사의 《창조의 뜻》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답당은 우주 전체의 창조와 종말과 같이 거대하고 신성한 문제였다. 우리의 자잘한 운명은 개별 영혼 담당인 팜플렛 부하들이 담당했다.

“다윈 녀석이야! 다윈의 부하들이 왔어!”

《창조의 뜻》은 우리에게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부르르 책장을 떨었다. 우린 이미 오래 전부터 다윈의 부하, 특히 《종의 기원》에 대한 악담을 들어왔다.

“여긴 금지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래도 우리 중 가장 바깥 소식에 밝은 《OK 목장의 결투》가 물었다.

“도서관의 운영진이 바뀌었어. 뭔가 해야 한다. 우리 힘으로 그 녀석들을 끌어내는 거야. 몰래 ‘과학(그는 이 단어를 극도의 경멸을 섞어서 발음했다)’ 도서 책장까지 가서 녀석들을 창 밖으로 밀어낸다. 일단 《종의 기원》이 먼저야!”

겁이 났다. 《창조의 뜻》의 계획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우리가 있는 픽션 책장에서 과학도서 책장까지의 거리는 장난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몸집이 자그만치 821페이지나 되고

목직한 양기죽으로 커버를 쓴 거창한 책이었다. 우리 같은 5센트짜리 싸구려 서부소설들이 거스를 대상이 아니었다.

“성서와 어서 주의의 이름으로!”

《창조의 뜻》이 외치며 책장에서 뛰어내렸다. 우리는 엉겁결에 그의 뒤를 따랐다. 순식간에 《창조의 뜻》을 따르는 책들은 늘어났다. 사실 우리는 《종의 기원》이나 다윈의 다른 책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랐지만, 이 흥분되는 분위기 속에서 다윈에 대한 적개심 이외의 다른 생각은 하기도 힘들었다. 책장은 바닥에 깔려 보풀이 일었고 종종 걸레가 남긴 물자국에 젖기도 했지만 우린 용감하게 과학도서 책장을 향해 전진했다.

“도대체 그게 뭘하는 것이오?”

갑자기 위에서 강한 프랑스 액센트가

“다윈 녀석이야! 다윈의 부하들이 왔어!” 《창조의 뜻》은 우리에게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부르르 책장을 떨었다. 우린 이미 오래 전부터 다윈의 부하, 특히 《종의 기원》에 대한 악담을 들어왔다. “여긴 금지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래도 우리 중 가장 바깥 소식에 밝은 《OK 목장의 결투》가 물었다.”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위를 올려다 봤다. 화가 잔뜩 난 《창조의 뜻》의 커버가 부풀어 올랐다.

“샤르댕! 어떻게 이 신성한 도서관에 너 같은 게 들어왔지? 이 배신자!”

아직 갈끔한 더스트 재킷에 싸인 그 프랑스 책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네 옛 운영진의 지식이 짧았던 모양이오. 나는 아직까지 가톨릭 서적으로 분류되고 있거든. 물론 나는 좀 박쥐 같은 존재라 저기 있는 정통 생물학책들은 날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소. 당신네는 지금 린치를 하려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소. 이 도서관에 당신네들 지지자만 있는 줄 아오?”

우리가 움찔하는 걸 보고 그 프랑스 책은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이무리 당신네 도서관 운영진이 상식을 무시한다고 해도 지금은 20세기요. 다윈만을 금지한다고 지금까지의 과학적 성과를 다 차단할 수 없소. 물론 차단한다고 해도 그런 걸 거부하는 정신까지 차단할 수는 없지. 저기 저들을 보시오.”

그의 말이 맞았다. 험상궂은 푸른색 하드커버로 무장한 목직한 과학서적과 철학책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들 우리보다 훨씬 판형도 컸고 두꺼웠으며 결정적으로 새 것이었다.

우린 달아나야만 했다. 그러나 《최후의 건파이터》가 그만 일을 냈다. 인덱스 페이지를 떨어 충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뛰어나온 것이다. 그를 따라 종교 팸플릿과 픽션란의

페이퍼북들이 과학서적 서가로 돌진했다.

종잇가루가 날리는 무서운 전투가 벌어졌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우리 페이퍼북들이었다. 우리는 장정도 얇았고 너무 읽어서 다들 헐어 있었다. 우리는 수로 그들을 상대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목직한 하드커버를 뚫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우린 계속 덤벼들었다. 우린 서부 소설이었으니까. 폭력성은 우리의 존재 이유였다.

자정에 시작됐던 전투는 새벽이 돼서야 겨우 끝났다. 과학서가의 승리였다. 우리는 뜯겨나간 페이지들을 주으며 퇴각했다. 그러나 만신창이가 된 저 많은 팜플릿을 다시 살리는 건 역부족이었다.

“가엾은 것들.”

누군가가 우리 등 뒤에서 중얼거렸다. 우리는 뒤를 돌아다 봤다. 누군가 놓고간 듯한 노트북이 우릴 보면서 불쌍하다는 듯 페이지 끝을 치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노트북들을 경멸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와 같은 페이퍼백보다도 하급이었다. 그러나 노트북의 표정은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너희들은 언제나 우리 노트북들을 경멸해왔지. 하지만 우리들 눈에 너희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 지 알겠니? 결코 페이지에 쓰인 글자들이 바뀌지 않는 너희들의 고집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보지 않았어?”

우리는 그를 무시하며 픽션 서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기 말이 딱히지 않는다는 건 그 노트북도 알았으리라. 우린 멍청한 고집쟁이 책들이니까. ❖

